

Loctite, 2003년에도 한발 앞서!

기술개발과 지원활동 꾸준히 ... 사회공헌활동과 스폰서십 중요시

고성능 엔지니어링 접착제 및 실란트 등을 공급하고 있는 헨켈록타이트는 2003년에도 기술지원 뿐만 아니라 공식 스폰서십과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국헨켈록타이트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록타이트 지사 중 오스트레일리아와 일본 다음으로 가장 큰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록타이트는 1997년 Henkel 그룹에 합병돼 2002년 4월 한국 헨켈록타이트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2002년 국민대 기계공학부 학생 2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데 이어 2003년도에도 국민대 2명, 영남대 1명, 울산대 1명 등 모두 4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헨켈그룹의 Community Citizenship 정신에 기인한 것으로 향후에도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



록타이트는 전국 대학생 자작 자동차 대회에 출전하는 경주팀에게 자동차 제작시 필요한 록타이트제품 지원하고 있는데, 2003년에는 30개 팀을 대상으로 지원함으로써 더욱 적극적으로 후원할 예정이다. 또 국내 각종 레이싱 경주에 트로피와 상금 제공 및 스폰서 계획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헨켈록타이트는 2002년 8월 새로운 기술연구센터를 일본 요코하마 Isogo에 설립해 기술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직원 40명에 25여명이 엔지니어로 구성돼 제품개발과 기술강화를 중시하고 있으며 온라인 상으로도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빠르면 2003년 말에 선보일 예정이다.

2003년에는 기능을 한층 높인 자동차용 실란트 6-7개 제품을 출시할 계획으로 있어 자동차용 실란트 시장의 선두 자리를 계속 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황현혜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3/27>